

에너지 절약 정책

지원기술과 사무관 최연우

1. 에너지절약정책 변화의 배경

'98년이후 치솟기 시작한 원유가격이 2000년 9월 배럴당 35불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작년에는 20불 내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리 나라는 에너지 최빈국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에너지분야에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원유가격이 우리경제 미치는 영향은 크다. 최근 들어 에너지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에너지절약정책 패러다임으로는 효율적인 에너지소비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1세기의 새로운 에너지환경에 적합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에너지 부문이 국가 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의 변화와 에너지 절약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그 동안 추진되어온 중화학공업 위주의 외형적 성장지향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세계 경제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에너지소비 분야에 크나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에너지부문도 공기업이 공급네트워크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산업구조가 에너지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른 공급중심의 정책에는 부합되지 않았지만, 이제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과 소비가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에 적합한 정책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현을 위해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아울러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경쟁지향적으로 경제구조의 틀을 전환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에너지산업도 과거의 독과점적 체제에서 벗어나 경쟁요소를 대폭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등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절약을 비롯한 에너지정책의 추진시스템도 시장경제 체제에 적합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코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도 여하한 형태로든 의무가 현실화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온실가스배출의 저감은 멀지 않은 장래에 산업 각 부문의 에너지사용을 압박하게 될 것이며, 선진국과 달

리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산업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국제환경규제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의 83.1% ('98년기준)가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일차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넷째, 이러한 시장의 개방과 경쟁의 도입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개발 또한 필수적이다.

즉,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맞춰 경제·사회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효율적인 정책수단 개발과 지원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에너지절약정책 방향

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추진

경쟁지향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에너지산업조직도 정부주도의 독과점적 체제에서 민간의 참여를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 및 경쟁요인의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지향적인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을 제고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에너지를 소비

하는 각 주체들이 가격의 시그널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고, 에너지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산업구조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맞춰 에너지시장의 관리기능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나. 에너지절약산업의 육성

에너지절약을 단순 규제시책에서 벗어나 시장지향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통한 ESCO투자사업의 추진은 수요자의 부담없이 절약형설비로 개체할 수 있으며,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에너지절약을 상품화하여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성숙시켜 에너지절약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물론 이에 정부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장과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협약(VA)을 체결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개발, 생산 및 시장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귀사의 위험물 유류저장탱크 문제점을 책임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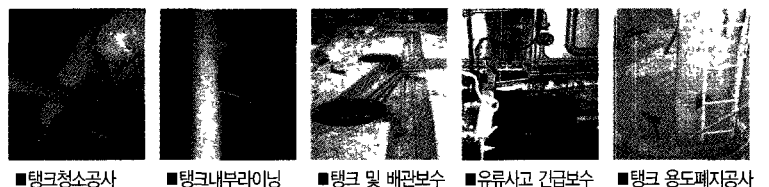
탱크교체無선언: 부식탱크 내부 특수라이닝 보수사용

청소 시설 보수 폐지 철거



(주)덕양엔지니어링은 현장상황에 맞게 직접 설계·제작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유류저장탱크의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해결합니다.

병커C유 유류탱크를 청소한 후 경유탱크로 품목 변경 사용



■탱크청소공사 ■탱크내부라이닝 ■탱크 및 배관보수 ■유류사고 긴급보수 ■탱크 용도폐지공사

주요 공사실적업체

태광산업/신도리코/동부제강/태평양/대한제철/공업/홍천하이테크/주/천안진로산업/피주시민회관/청주시청/서울세관/서산시청/한국마사회/수원성균관대학교/용인명지대학교/항공학교/경상대학교/롯데월드/대구파크호텔/무주리조트/백암한화콘도/대전삼부아파트/의정부장암아파트/광주 두암주공/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이천○○작전시령부/대구○○사령부/홍천○○사단/원주○○사단/현대정유에스-오일/저유소/주유소/다수업체

덕양 (주) 덕양엔지니어링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22번지
대표전화 : (02)2636-0997
TEL : (02)678-0997/8, FAX : (02)671-8725